

## 3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③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둘 것으로써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 ④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고조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가 느끼는 이국적인 세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 34.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음반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 ② [B]: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 ③ [C]: 대구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울음소리에서 연상되는 상반된 의미와 연결하여 화자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35. &lt;보기&gt;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lt;보 기&gt;

김춘수는 그림 「나와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서로 표현함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다.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당나귀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그 당나귀의 눈망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을이었다.”라고 느낌을 말했다. 또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로 이루어진 사나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용했다. 이는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사갈의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② ‘삼월에 눈’, ‘봄을 바라고 있는 사나이’, ‘새로 들풀은 정맥’ 등은 시인이 그림 속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를 다양한 이미지들의 병치로 변용하여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③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한 것이군.
- ④ ‘올리브빛’은 시인이 그림 속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겨울 열매들’을 물들이는 따뜻한 봄의 이미지를 표상한 것이군.
- ⑤ ‘아느’, ‘아궁이’ 등은 시인이 초현실주의적 그림 속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 시킨 것이군.

##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점이 심복을 보내 거짓 조서를 전하고 옥에 가두니, 경업이 옥에 갇혀 생각하되,

‘세자와 대군이 어찌 내 일을 모르고 구치 아니시는고?’  
하며 주야번민하여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옥졸이 자점의 부족(附囑)\*을 들은 고로 물도 주지 아니하여 경업이 더욱 한 하더니, 진옥(典獄) 관원은 강직한지라 경업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겨 경업더러 왈,

“장군을 역적으로 잡음이 다 자점의 흥계니, 잘 주선하여 누명을 벗으라.”

경업이 그제야 자점의 흥계로 알고 통분을 이기지 못하여 바로 물을 날려 옥문(獄門)을 깨치고 궐내에 들어가 상을 뺏고 청죄한데, 상이 경업을 보시고 반겨 가로되,

“경이 만리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며 반가움이 끝이 없거늘 무삼 일로 청죄하느뇨?”

경업이 돈수사죄 왈,

“신이 무년에 북경에 잡혀가다가 중간에 도망한 죄는 만사 무석이오나, 대명(大明)과 함께 호왕을 배어 병자년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고자 하였더니, 간인에게 속아 북경에 잡혀갔다가 친행으로 살아 돌아온데니, 의주(義州)에서 잡혀 아무 연고인 줄 알지 못하였고 오늘을 당하와 천안(天顏)을 뵈오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사옵니다.”

상이 들으시고 대경하사 신하더러 왈,

“경업을 무슨 죄로 잡아온고?”

하시고 자점을 폐초(牌招)하자 실사를 물으시니, 자점이 속이지 못하여 주왈,

“경업이 역적이옵기로 잡아 가두고 계달코자 하였나이다.”

경업이 대로하여 고성대매 왈,

“이 몸쓸 역적이! 들으라. 벼슬이 높고 국록이 족하거늘 무엇이 부족하여 모반할 마음을 두어 나를 해코자 하느뇨?”

자점이 듣고 무언이거늘, 상이 노하여 왈,

“경업은 삼국의 유명한 장수요, 또한 만고충신이거늘 네 무슨 일로 죽이려 하느뇨?”

하시고,

“자점과 함께한 자를 금부에 가두고 경업은 물려가 쉬게 하라.”

하시다.

〔A〕 경업이 사온하고 퇴궐할세, 자점은 궐문 밖에 나와 심복 수십 명을 매복하였다가, 경업이 나옴을 보고 불시에 달려 들어 난타하니, 경업이 아무리 용맹한들 손에 촌철이 없는 지라. 여러 번 맞아 중상하매 자점이 용사들을 분부하여 경업을 옥에 가두고 금부로 가니라.

이때 대군이 시자(侍者)더러 문왈,

“임 장군이 입성하였으나 지금 어디 있느뇨?”

시자가 대왈,

“소인 등은 모르나이다.”

대군이 의심하여 바삐 입궐하여 경업의 거처를 물되, 상이 수말을 이르시니 대군이 주왈,

“자점이 이런 만고충신을 해하려 하오니 이는 역적이라. 엄처 하소서.”

하고, 명일을 기다려 친히 경업을 가 보려 하시더라.

〔B〕 차시, 경업이 자점에게 매를 많이 받아 천명이 진하게 되매 분기대발하여 신음하다 죽으니, 시년 사십팔 세요,

기축(己丑) 9월 26일이라.

(종락)

자점이 반심을 품은 지 오래다가 절도(絕島)에 안치되며 더욱 양양(快快)하여 불죽지심이 나타나거늘, 우의정 이시백이 자점의 일을 아뢰니, 상이 놀라 금부도사를 보내 엄형 국문하신 후 옥에 가두었더니, 이날 범한 꿈을 염으시니, 경업이 나아와 주왈,

“홍적 자점이 소신을 죽이고 반심을 품어 거의 일이 되었사오니 바빠 국문하옵소서.”  
하고 울며 가거늘, 상이 놀라 깨달으시니 경업이 앞에 있는 듯 한지라. 상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날이 밝으매 자점을 훌려 국문하시니, 자점이 자복하여 역심을 품은 일과 경업을 모해한 일을 승복하거늘, 상이 노하여 자점의 삼족을 다 내어,

“저자 거리에서 죽이라.”

하시고,

“그 동류를 다 문죄하라.”

하시며, 경업의 자식들을 불러 하교 왈,

“너희 아버지가 자결한 줄로 알았더니, 꿈에 와 ‘자점의 모해로 죽었다.’ 하기로 내어 주나니 원수를 갚으라.”

하시다.

- 작자 미상, 「임장군전」 -

\* 부축: 부탁하여 맡김.

\* 폐초: 임금이 승자를 시켜 신하를 부름.

\* 양양하여: 매우 마음에 차지 아니하거나 아속하여.

## 3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들의 대립 구도를 통해 서사적인 흥미를 높이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죽음을 제시하여 작품의 비극성을 고조하고 있다.
- ③ 대화의 내용을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악인의 횡포를 징벌함으로써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적대자와의 저략 대결을 통해 주인공의 초월적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 3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업은 옥에 갇히기 전부터 거짓 조서 때문에 자점의 흥계를 알고 있었다.
- ② 옥졸은 자점의 부탁을 받고 경업의 죄를 상에게 밀고했다.
- ③ 대군은 자점을 의심하며 경업에게 옥에 갇힌 경위를 물었다.
- ④ 우의정 이시백은 경업이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상에게 제공 했다.
- ⑤ 상은 꿈에 나타난 경업의 밀언 이후 자점의 자복을 믿어 내었다.

## 38. &lt;보기&gt;를 참고할 때,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lt;보 기&gt;

『임장군전』을 읽은 당시 독자들은 책의 어백과 말미에 특정 대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다양한 필사기를 남겼다. ‘식자총’은 ① 대역 짐자점의 소행이 혐오스러워 붓을 범춘다.”라는 시각을 나타내거나 ② 잡혔으니 가히 아프고 괴로 우며 애석하네.”라며 경업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평민총’은 “③ 슬프다. 임 장군이여. 남의 손에 죽으니 어찌 천운이 아니라.”라며 숙명론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④ 조희하고 나오는 것을 문외의 무사로 박살하니 그 아니 가엾지 아니리오.”라는 안타까운 반응을 남기거나, “⑤ 사람마다 알게 하기는 동국총신의 밀임에 혹 만민이라도 깨달아 본받게 함이라.”라는 필사기 to 남겼다. ①, ②, ③은 경업이 죽는 대목에, ④과 ⑤은 경업이 자점에게 괴롭히는 대목에 남아 있는 필사기이다.

- ① [B]를 읽은 식자총은, ②을 통해 자점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군.
- ② [A]를 읽은 식자총은, ③을 통해 경업의 시련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군.
- ③ [B]를 읽은 평민총은, ④을 통해 경업의 죽음이 자점 때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죽음에 대해 운명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④ [A]를 읽은 평민총은, ⑤을 통해 자점의 비관하면서도 그의 행위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군.
- ⑤ [B]를 읽은 평민총은, ⑥을 통해 충신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 지기를 바라고 있군.

## 수능 끝… ‘메디유 아미노 앰플’로 피부관리 해볼까

## 리더스코스메틱 122만병 판매 돌파



글로벌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리더스코스메틱의 ‘메디유 아미노 H.A. 모이스처 앰플’은 출시 4달 만에 122만병 판매를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